

# 황선우, 美 수영 매체가 뽑은 '올해의 아시아 남자선수'

올해 톱코스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 은메달

쇼트코스 세계선수권에서는 대회 2연패 달성

미국 수영 전문 매체가 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19·강원도청)를 올해 아시아 최고 남자 선수로 뽑았다. 수영 전문 매체인 스웜스웜(SwimSwam)은 28일(한국시간) "황선우를 2022 올해의 아시아 남자 수영 선수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황선우가 지난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줬다"며 "올해 메이저 국제대회에서 2개의 메달을 수확했다"고 선정 이유를 전했다. 황선우는 올해 6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22 국제수영연맹 톱코스 세계수영 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 44초47의 한국신기록을 써내며 은메달을 목

에 걸었다. 한국 경영 선수가 톱코스 세계선수권 시상대에 오른 것은 2011년 상하이 대회 박태환의 자유형 400m 금메달 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자유형 200m로 범위를 좁히면 2007년 멜버른 대회 박태환의 동메달 이후 15년 만의 메달이고, 한국 선수 역대 최고 성적이다. 스웜스웜은 한국 남자 자유형 200m 역대 기록 상위 10위 내에 황선우의 기록이 4개, 박태환의 기록이 6개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 한국기록 보유자이자 한국 수영의 유일한 올림픽 메달리스트(금 1개·은 3개)인 박태환과 황선우의 시대가 겹쳐가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황선우는 쇼트코스(25m)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선보였다. 그는 이달 18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2022 국제수영연맹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39초72의 아시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수확,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올해 쇼트코스 세계선수권 이전까지 쇼트코스 남자 자유형 200m 한국 및 아시아기록은 박태환이 2016년 세계선수권에서 기록한 1분41초03이었다. 올해 세계선수권 계영 800m 결승에서 첫영자로 나서 한국 및 아시아기록을 1분40초99로 단축한 황선우는 자유형 200m 결승에서 이를 만에 이 기록을 1초27 줄였다. 1분39초72는 파울 비더만(독일)이 2009년 11월 경영 월드컵에서 작성한 세계기록(1분39초37)에 불과 0.35초 뒤쳐진 기록이다. 역대 3위 기록이기도 하다. 국제수영연맹이 전신수영복 착용을 금지한 2010년 이후로



는 아니 아넬(프랑스)이 2012년 자국 선수권 대회에서 작성한 1분39초70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이다. 뉴스

## 전남축구협회 U14대표팀, 해외 선진축구 전지훈련 열공

14일부터 23일까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전지훈련...도내 지도자 5·선수 20명 참가



전남축구협회의 U14대표팀이 이탈리아 세리에A 명문팀 유벤투스 전지훈련 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 전남축구협회에 따르면, 신정식 회장을 필두로 한 전남축구협회 U14 대표팀의 25명 선수단이 지난 14일 출국해 23일까지 8박9일의 일정으로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트레이닝캠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트레이닝캠프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해외 전지훈련 프로그램이 잠정 중단된 후

첫 프로그램으로 도내 중학교팀 우수 지도자 5명과 우수 선수 20명이 참가했다. 지난 2017년 프로축구팀들의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페인 세비아에서 첫 트레이닝캠프를 실시한 전남축구협회는 이듬해, 독일 브레멘, 2019년에는 미국 LA로 전지훈련을 떠나 해외 우수 클럽팀들과의 평가전을 통해 선진 축구를 직접 경험하고 해외의 축구문화를 체험하는 등 전남 유소년 축구선수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있다.

특히 이번 캠프는 이탈리아 세리에 A 유벤투스의 유소년팀 트레이닝 훈련 세션에 함께 참여하고, 현지 유소년팀과의 3차례의 평가전이 추진됨과 동시에 유벤투스의 1군 프로선수들의 훈련 관전, 홈경기장인 알리안츠스타디움 투어를 진행하여 선수들의 선진축구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어린 꿈나무 선수들의 해외 전지훈련 및 현장 체험 경험은 향후 전남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로의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16년 전남축구협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신정식 회장은 유소년 선수 발굴 및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유소년 선수 해외 전지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계획 및 지원하고 있다. 신정식 전남축구협회장은 "전남축구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선수들의 산실이다"며 "허정무, 기성용 등을 비롯하여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나상호 선수가 맹활약 하는 등 전남에서 나온 자란 선수들이 국가대표로서 전남 축구의 자긍심을 높여줬기에 이번 토리노 전지훈련에 참가한 선수들도 전남대표를 넘어 더 나아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카타르월드컵 9위 모리야스 감독 2+2년 계약

일본축구협회와 연봉 2억엔 계약 임박 2026년 월드컵 계약 연장 기본 옵션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의 16강을 이끈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의 재계약 발표가 임박했다. 그런데 4년 완전 보장이 아닌 2+2년 계약이다. 일본 닛칸 스포츠는 28일 일본축구협회 자문위원회를 열어 모리야스 감독의 계약 연장에 대한 최종 협의를 한다고 보도했다. 이미 모리야스 감독의 재계약은 확정된 분위기다. 기존 계약에서 5000만엔(4억 7000만 원) 인상된 연봉 2억엔(19억 원)에 재계약 도장을 찍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축구협회가 28일 여는 자문위원회는 재계약을 승인하는 요식 절차라는 뜻이다. 닛칸 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축구협회는 크로아티아와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이 끝난 다음날에 모리야스 감독에게 재계약 의사를 타진했으며 이후 협의를 진행해왔다. 일본축구협회의 분위기는 일찌감치 재계약 쪽으로 무게감이 실렸다. 자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면 내년 1월 19일에 열리는 이사회를 통해 추인 형식으로 최종 결정된다. 이는 한국의 벤투 감독이 재계약 협상에



서 실패한 것과 대비된다. 일본축구협회의 재계약 조건도 기본적으로 2+2년 계약이다. 내년부터 계약이 발동된다면 모리야스 감독은 2024년 말까지 안정적으로 대표팀을 지휘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닛칸 스포츠는 큰 문제가 없다면 2년 추가 옵션이 기본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결국 2+2년은 형식적인 것이고 2026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까지 일본 대표팀을 맡긴다는 뜻이다. 뉴스

## 거듭되는 오심...심판 판정 예민해지는 프로배구 감독들

KB손보 후인정, 한국전력전 오심 항의 네트 터치에도 안 닿았다 영상 판독 논란 도로공사-현대건설전 거듭 오심에 반발

프로배구가 3라운드에 접어들면서 순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 경기 한 경기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면서 감독들도 심판 판정과 오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남자프로배구 KB손해보험은 지난 27일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남자부 한국전력전에서 3-1(25-23 22-25 25-23 27-25)로 이겼다. 이기긴 했지만 KB손보는 오심 탓에 경기를 내줄 뻔했다. 세트스코어 2-1로 앞선 KB손보는 4세트에서 오심에 발목을 잡혔다. 9-12로 뒤진 상황에서 홍상혁의 후위 공격 때 한국전력의 네트 터치 범실이 선언되지 않아 후인정 KB손보 감독이 강하게 항의했다. 후 감독은 한국전력 박찬웅이 네트를 건드렸으며 영상 판독을 요청했다. 돌아온 판독 결과는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방송 중계 화면으로 봐도 버젓이 보이는 네트 터치 상황에서 심판진이 건드리지 않았다고 판정한 것. 관중들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흥분한 후 감독은 선수들을 향해 코트 밖으로 나오라며 절수를 지시하기까지 했다. 후 감독은 휴지통을 걷어차기도 했다. 후 감독은 "애들은 1년 동안 개고생해서 게임 뛰는데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8분 가량 경기가 중단됐다. 그 때도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나아가 권대진 주심은 KB손보에 경기 지연을 이유로 경고까지 줬다. 오심 후 무너질 듯 했던 KB손보는 새 외국인 선수 비예나를 앞세워 한국전력을 추격했고 결국 4세트를 따내 승리했다. 심판 판정에 대한 격한 항의는 여자프로배구에서도 나왔다. 지난 22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현대건설전에서 김종민 도로공사 감독이 심판진을 강하게 비난했다. 당시 경기에서 2세트와 3세트에 각각 3번씩 영상 판독이 이뤄졌고 판정이 모두 번복됐다. 터치아웃 판정과 인아웃 판정이 번번이 오심으로 드러나자 김종민 감독은 경기 패배 후 심판들을 향해 "경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고 소리쳤다. KB손보와 도로공사 모두 순위 상승이 절실한 상황에서 오심이 거듭되자 불만이 폭발한 모양새다.



항의하는 후인정 KB손해보험 감독.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심판진과 배구연맹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오심과 판정 번복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각 팀의 판독 신청 기회를 세트당 2회로 제한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명백히 잘못된 판독 결과에 대한 항의를 시간 지연으로 해석해 경고를 준 이번 KB손보 경기 사례 역시 논란 여지가 있다. 나아가 방송 중계 카메라 대신 더 정밀한 촬영 장치를 설치해 판정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뉴스

## 전성현 "안 막으면 30개도 가능" 역대 최소 경기 3점슛 100개 돌파

"(상대가 수비하지 않는다면) 3점슛 30개도 가능하다"고 자신한 고양 캐롯의 슈터 전성현이 프로농구 3점슛 기록을 새롭게 쓰고 있다. 전성현이 정규리그 25경기 만에 3점슛 102개를 성공하면서 역대 최소 경기 3점슛 100개 돌파를 기록했다. 전성현은 27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와 경기에서 3점슛 5개를 포함해 23점을 올렸다. 팀은 아쉽게 82-84로 석패했지만 전성현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날 전까지 24경기에서 3점슛 97개를 넣었던 전성현은 5개를 보태며 25경기 만에 100개를 돌파했다. 102개. 이는 2000~2001시즌 26경기 만에 3점슛 100개를 돌파(103개)했던 조성원(당시 LG)의 기록을 한 경기 앞당긴 것이다. 경기당 3점슛 4.1개를 넣고 있는 전성현은 평균 20.1점을 올리며 국내선수 득점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외국인선수를 통틀어도 자밀 위니(SK·23.8점)에 이어 2위다. 54경기 체제의 정규리그에서 전성현이 현재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최초로 한 시즌 누적 200개 돌파가 가능하다. 역대 한 시즌 최다 3점슛은 2003-2004시즌 우지원(당시 모비스)이 기록한 197개다. 2위는



같은 시즌 문경은(당시 전자랜드)이 넣은 194개. 하지만 두 기록은 타이틀 밀어주기를 위해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상대팀과 담합해 나온 게 포함돼 있어 농구계에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상대가 의도적으로 수비하지 않은 가운데 최종 한 경기에서 문경은이 22개, 우지원이 21개를 넣었다. 전성현은 '과거 문경은, 우지원의 사례처럼 상대가 수비하지 않는다면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는냐'는 질문에 "30개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기록들을 제외하면 문경은이 2002-2003시즌 넣은 189개가 사실상 역대 한 시즌 최다 3점슛 기록이다. 전성현이 정정당당한 승부 속에서 3점슛 기록을 새롭게 할 수 있을지 관심사다.